

Global Issue Paper

글로벌 이슈 페이퍼는 세계 126개 무역관에서 입수되는 실물 경제 정보를 취합·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투자 진흥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해외 각국의 현지 동향과 업계 반응 등 현장감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음을 천명드립니다.

이슈 요약

RCEP 제20차 공식협상 이후 주요 참여국 동향 및 향후 전망

□ 【의의】 동아시아 역내 경제 통합을 위한 아태지역 메가 FTA로서 RCEP의 중요성 부각

- 미국 TPP 탈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 아태지역 메가 FTA로 다시 주목
- 전 세계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향후 유망시장으로 잠재력 다대, 기체결 FTA 자유화 수준 제고 및 규범 조화 등을 통한 비용절감, 역내국 GVC 활성화 예상

□ 【참여별 입장】 참여국의 경제 규모 및 발전 수준에 따라 입장 상이

- 한국은 이번 제20차 공식협상의 개최국이자 AFP 조정자(ASEAN FTA Partner facilitator)로 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
- 여타 RCEP 참여국에 비해 경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 인도, 필리핀 등은 RCEP 조기 타결 희망
 - (중국)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 보다 조속한 타결 목표, (인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낮은 자유화 추구, (필리핀) '17년 ASEAN 의장국으로 RCEP의 조속한 타결 추진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TPP 참여국은 RCEP의 높은 자유화 수준 추구
 - (일본) GVC 활성화 및 심화, (호주뉴질랜드)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 (싱가포르) 기체결 FTA 네트워크 개선 및 보완
- 미얀마, 캄보디아 등 신흥국은 자국 시장개방에 대해 경제협력 요구하며 RCEP을 경제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입장

□ 【전망】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합의 도출을 위해 참여국의 유연한 입장 필요

- 올해 개최되는 마지막 공식협상으로 연내 타결은 이루지 못했으나 연말까지 ASEAN 정상회담, ASEAN 50주년 출범 등의 사안이 남아있어 연내 의미 있는 합의 도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 아태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메가 FTA로 참여 각국의 첨예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 각국은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다자협상 장점을 활용한 전략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

1 RCEP 협상 개요 및 경과

□ RCEP 개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ASEAN(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 * 전 세계 인구의 약 48%, GDP 31%, 대외무역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 (목적) 아태지역의 포괄적인 수준의 경제 통합
- (배경) 전 세계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 대한 ASEAN 차원의 대응 및 미국 주도의 TPP에 대항해 아태지역에서 미국 견제 의도
- (협상목표) '12.8월 RCEP 협상지침(Guiding Principles) 확정
 - * RCEP 참여국간 기존 자유화 수준에 기초한 품목수·교역액 기준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ASEAN+1 FTA에 기초한 추가적인 자유화 추진, 투자 활성·보호·원활화·자유화, ASEAN+1 FTA에 기초한 관련 규정 마련, 무역투자 장벽 완화, 경쟁 촉진·반경쟁 관행 완화, 분쟁해결절차 마련, RCEP 참여국간 FTA에 포함 신규 이슈 반영 검토
- (구성) 총 14개 작업반 및 소작업반으로 구성되어 협상 진행(제20차 협상 기준)

RCEP 장관회의(RCEP Ministerial Meeting)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



작업반	소작업반
- 상품 - 서비스 - 투자 - 지식재산권 - 정부조달 - 법률제도 - 전자상거래	- 원산지 - 무역구제 - 통관 및 무역원활화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STRACAP) - 금융서비스 - 통신서비스

* 주 : STRACAP(Standard,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유사

- 미국의 TPP 탈퇴('17.1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하에서 동아시아 역내 경제 통합을 위한 아태지역 메가 FTA로서 RCEP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RCEP 협상 주요 경과

- '12.11월 RCEP 협상 개시 선언 이후, '13.5월 제1차 공식협상 개최
- 제20차 RCEP 공식협상이 한국에서 개최('17.10.24-28, 인천)
 - 이번 협상은 제10차 공식협상('15.10월)에 이어 한국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협상으로 한국은 각국 대표단에게 실질적 타결을 위한 분기점이 되도록 노력 촉구
 - * 한국은 제9차 공식협상('15.8월)부터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6개 동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연맹(AFP, ASEAN FTA Partner) 국가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논의를 촉진하는 동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연맹 조정자(AFP facilitator) 역할 수행
 - 한국은 RCEP 참가국 대상 한국 투자유치 설명회도 동시 개최하여 역내 국가간 경제 협력 필요성 및 증대를 강조하고, 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하며 국익 극대화를 위해 대응한다는 입장
 -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으로 RCEP 참여국은 의미 있는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함
 - * '15년 타결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16년로 타결시킨 연기, 현재 구체적인 타결 시한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음

제20차 공식협상 주요 쟁점

- ▶ **(상품)** 최종 공통양허 및 협정문 논의를 통해 상품 시장접근 개선
 - 국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원칙하에 참여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양허 논의
 - 참여국이 상품 후속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나 국별 양허안 개방 수준의 차이로 인해 이에 대한 합의 수준 논의 중
 - * 국별 상이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어려운 공통양허방식은 타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양허 수준은 국별 입장차가 있으나 80-92%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¹⁾
- ▶ **(서비스·투자)**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 서비스 분야 후속 양허안을 교환하여 협정문에 대해 집중 논의
 - 투자 분야 일부 국가 투자 유보안 제출 완료
 -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시장개방 논의 대신 협정문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협상 진전
- ▶ **(규범)** 원산지, 지재권, 정부조달, STRACAP, SPS 등 다양한 규범 및 협력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
 - 경제기술협력(제15차 협상), 중소기업(제16차 협상) 타결
 - (지재권) 의약품 특허 존속 기간 등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해 국별 첨예한 이견 존재
 - (전자상거래) 이번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챕터가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함. 국경간 데이터 이동, 컴퓨터 설비 현지화, 소스코드 공개 등이 핵심 쟁점

1) Bangkok Post, *RCEP Framework Shapes Up*, (2017.10.24)

[RCEP 협상 주요 경과]

일시 및 장소	구분	주요 내용
2013년 5월 9-19일 브루나이	제1차 공식협상	- RCEP 무역협상위원회의 운영 및 관련 규칙에 합의 - 상품·서비스·투자 작업반 첫 회의 개최
2013년 9월 23-27일 호주	제2차 공식협상	- 상품 양허방식 및 협상범위 논의
2014년 1월 20-24일 말레이시아	제3차 공식협상	-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논의 - 경쟁·지재권·분쟁해결·경제기술협력 작업반 구성 합의
2014년 3월 31일-4월 4일 중국	제4차 공식협상	- 상품 시장 자유화를 위한 협상지침, 비관세조치·위생검역·기술 표준·원산지·통관·무역원활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 - 서비스·투자 분야 시장 자유화방식 및 협정문 기본요소 논의 - 경쟁·지재권·경제협력 분야 협정문 포함 요소, 범위, 계획 논의
2014년 6월 23-27일 싱가포르	제5차 공식협상	- 상품·서비스·투자 경제협력·경쟁·지재권·법률제도 7개 작업반 회의 개최 - 중소기업협력, 전자상거래, 글로벌가치사슬, 정보조달분야 협상 대상 포함 여부 논의
2014년 12월 1-5일 인도	제6차 공식협상	- 상품 1차 양허안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방식 및 협정문 주요요소 논의 - 위생검역·기술표준·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경쟁·지재권·경제협력·법률제도 논의
2015년 2월 9-13일 태국	제7차 공식협상	- 상품·서비스·투자 경쟁·지재권·경제협력·법률제도 분야 협정문 협상 - 중소기업 워크숍, 전자상거래 전문가회의 등 다양한 비공식 회의 개최를 통해 활발한 정보 공유
2015년 6월 8-13일 일본	제8차 공식협상	- 상품 1차 양허안 주요요소,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방식, 상품·서비스·투자 협정문 주요요소에 대해 논의
2015년 8월 3-7일 미얀마	제9차 공식협상	- 한국은 이번 9차 공식협상부터 6개* 동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연맹 (AFP, ASEAN FTA Partner) 국가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논의를 촉진하는 AFP 조정자(AFP facilitator) 역할 수행 *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2015년 10월 12-16일 한국	제10차 공식협상	- 상품·서비스·투자 지재권·원산지 등 14개 분과 회의 동시 개최 - 상품·서비스·투자 협상지침을 기반 실질적 시장접근 협상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연내 타결에는 실패
2016년 2월 15-19일 브루나이	제11차 공식협상	- '16년 RCEP 타결 목표를 포함한 RCEP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 ('15.11월 ASEAN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협상 -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실질적 협상 및 협정문 협상 심화
2016년 4월 22-29일 호주	제12차 공식협상	- 연내 타결을 목표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시장접근과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등 규범 분야 협정문 협상 진행
2016년 6월 10-18일 뉴질랜드	제13차 공식협상	-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시장접근 협상 및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등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 가속화
2016년 8월 15-19일 베트남	제14차 공식협상	-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시장접근 협상 및 지재권·경제기술협력 등 총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 진행
2016년 10월 17-21일 중국	제15차 공식협상	- 상품 시장접근 개선, 서비스 자유화 제고 기준 설정 방안 협의 - 지재권·SPS·원산지·경제기술협력 등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 진전 모색 - 경제기술협력 챗터 타결
2016년 12월 6-10일 인도네시아	제16차 공식협상	- 상품 분야는 높은 자유화 수준을 추구하되 참여국별 다양한 상황 반영한다는 원칙하에 공통양허 집중 논의 -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한 기준 합의점 모색 - 중소기업 챗터 타결
2017년 2월 27일-3월 3일 일본	제17차 공식협상	- 상품 분야 최종 공통양허 목표, 후속 양허 구체적 기준 및 교환 일정 논의, 서비스 양허안 교환 추진 - 원산지, 지재권, 통관, 전자상거래 등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 가속화
2017년 5월 8-12일 필리핀	제18차 공식협상	- 시장접근 협상 가속화 필요 공감 및 연내 타결 목표 - 상품·서비스 후속 양허안 교환 및 시장접근 협상 진행
2017년 7월 24-28일 인도	제19차 공식협상	- RCEP 정상지침('16.9월)에 따라 조속한 타결을 위해 '17년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상 가속화
2017년 10월 17-28일 한국	제20차 공식협상	-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으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하며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협상 진행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및 각종 언론기사 종합

□ RCEP 및 TPP 현황

- RCEP과 TPP는 대표적인 메가 FTA로 비교대상이 되어왔으나, 미국 탈퇴 이후 TPP 발효가 불투명해지자 RCEP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
- RCEP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향후 유망시장으로 잠재력이 다대
- TPP는 전 세계 GDP의 3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었으나, 미국 탈퇴 이후에도 포괄적인 시장접근을 추구하는 등 높은 개방 수준을 유지하며 발효 추진 중

[RCEP 및 TPP 비교]

	RCEP	TPP	
정식명칭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경과	'13.5월 협상 개시 '17.10월 20차례 공식협상 개최	'10.3월 협상 개시 '15.10월 타결 공식 선언 '16.2월 정식서명 '17.1월 미국 탈퇴, TPP-11 추진	
참여국	총 16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TPP(미국 탈퇴 이전) 총 12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TPP-11(미국 탈퇴 이후) 총 11개국 TPP 기존 참여국에서 미국 제외
		8억 1792만 명 (11.2%)	4억 9462만 명 (6.8%)
인구 (비중)	35억 2600만 명 (48.4%)	8억 1792만 명 (11.2%)	4억 9462만 명 (6.8%)
명목 GDP (비중)	23조 8730억 달러 (31.6%)	28조 8295억 달러 (38.3%)	10조 2051억 달러 (13.5%)
무역규모 (비중)	9조 1019억 달러 (30.0%)	8조 4515억 달러 (27.8%)	4조 7529억 달러 (15.7%)
수출 (비중)	4조 8487억 달러 (32.0%)	3조 3654억 달러 (25.5%)	2조 4149억 달러 (15.9%)
수입 (비중)	4조 2531억 달러 (28.0%)	4조 5861억 달러 (30.2%)	2조 3379억 달러 (15.4%)

* 주 : 2016년 기준(단, 베트남, 브루나이 수출입은 2015년 기준)

* 자료원 : IMF, UN Comtrade

- 미국의 TPP 탈퇴 이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TPP 및 RCEP 동시 참여국의 RCEP에 대한 입장 변화 파악

2 RCEP 참여국별 입장

① 조기 타결 추구 -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 (중국) 아태지역에서 영향력 확대가 주요 목적으로 RCEP의 높은 자유화 수준보다는 조속한 타결을 지지하는 입장, RCEP을 통해 아태지역 경제 통합을 강화하고 GVC(글로벌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
 - * '13년 협상 개시 당시 '15년 협상종결을 목표로 확정하여 3년 내 타결 희망
 - ** '17.5월 중국 통상업무를 총괄하는 중산(鐘山) 상무부장은 연내 협상 종결 촉구
- RCEP을 통해 많은 회원국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형성을 위한 초석으로 RCEP 활용한다는 입장²⁾
 - * '06년 APEC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는 21개 APEC 회원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한다는 목표
- RCEP 타결 시 중국 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이 낮은 기업 퇴출 및 중국 진출외자기업의 생산거점 이전 가속화에 대한 우려 시각도 존재
 - * '17.8월 JETRO가 3천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한 비중이 15.3% 차지
- 중국은 미국의 TPP 탈퇴를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라 비난하며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확대 기회로 판단
 - *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로와 동남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잇는 해로를 연결해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전략으로 '13.9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제안, '16.1월 공식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은 일대일로 구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이 설립한 다자개발은행
 - ** '16.11월 중국 경샹(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TPP 탈퇴 선언에 대해 중국은 ASEAN과 함께 RCEP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2) Global Atlanta, *JETRO's Chairman and CEO Cites North Korea Threat and Encourages Southeast's Leaders to Defend TPP*, (2017.10.23)

- (인도) RCEP을 통한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 목적으로 낮은 자유화 수준을 요구하며 보수적인 협상 자세 유지
 - 상품 분야에 대해 낮은 개방 수준을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차이를 두기 희망하며, FTA 체결하지 않은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 진출 기회 발판으로 활용한다는 입장
 - * (관세) 인도는 ASEAN에 대한 관세 인하에는 동의, 호주·뉴질랜드·중국과 같이 FTA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6% 편차 요구, 중국에 대해서는 이행 기간 연장 요구
 - ** (지재권) 인도는 의약품 특허 연장조건 및 자료 독점권 조항에 반대,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도입 반대³⁾
 - 서비스 분야 관련 기업인의 비자발급 등 자연인의 이동(Mode 4)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유화 요구
 - * 인도는 전자상거래 관련 공공·민간 데이터 유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도 기업인의 비자발급 희망하고 있으나 여타 참여국은 반대 중
 - 인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제품의 시장개방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對중국 관세 인하에 신중한 입장⁴⁾
 - * 인도의 핵심 산업군인 중국산 전기전자, 철강, 화학 등의 인도 내 시장점유율 증가, '16년 인도의 對중국 무역 적자 약 600억 달러 기록

3) The Wire, *India Will Not Cross Red Lines on Generic Drugs in RCEP, but Stay Vigilant, Say Officials*, (2017.10.24)

4) China Briefing, *China's Free Trade Agreements in South Asia*, (2017.10.11)

- (베트남) TPP와 별개로 RCEP 조기 타결을 위해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
 - (RCEP) 한국, 일본, 호주 등 회원국과 기체결한 FTA 개선 및 GVC 참여 확대, 무역장벽 완화, 규범 조화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 및 투자 환경 개선 기대
 - * 원산지 누적 기준 인정 시 주요 원부자재 수입국인 중국산 역내 인정 가능성, 양자 FTA 미체결국인 인도 시장 수출 활성화, ASEAN·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및 투자지로서 입지적 이점 부각 기대
 - ** RCEP 참여국 중 다수가 베트남과 유사한 비교우위품목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낮은 일부 품목의 경우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TPP) 미국 시장 진출을 염두하고 TPP에 참여한 베트남은 TPP-11 발효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미국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TPP 발효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 시사
 - * 베트남은 TPP 의약품 관련 지재권 보호, 컴퓨터 설비 현지화 조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 (필리핀) '17년 ASEAN 의장국인 필리핀은 RCEP 협상을 가속화하고 올해 안에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 촉구
 - * '17.5월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ASEAN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올해 안에 RCEP 타결을 목표로 노력 중임을 밝힘
 - 필리핀은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RCEP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필리핀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⁵⁾
- (말레이시아) RCEP 및 양자간 무역협정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
 - (RCEP) 미국 TPP 탈퇴에 유감을 표명하며, RCEP 및 양자 FTA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
 - (TPP) 말레이시아의 TPP 참여 이유는 미국 시장접근 개선으로 미국 탈퇴 시 TPP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바 있으나, 말레이시아의 기체결 FTA 토대로 미국 시장 진출 노력 지속 및 FTA 미체결 국가인 중남미 국가와 협력 강화 전략 마련 중⁶⁾

5) ANN Asia News Network, *China Pivot Yields Results*, (2017.10.24)

6) East Asia Forum, *Where Will Malaysia's Trade Policy Go Post-TPP?*, (2017.8.10)

2 높은 자유화 추구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싱가포르 등

- (일본) RCEP을 통해 GVC 확장 및 규범 조화를 통한 스파게티볼 효과 완화를 기대하며, 미국 탈퇴 이후 TPP 발효 노력도 지속
 - * 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 시 각국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지칭
- (RCEP) 효율적 국제분업체계 구축,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환경 개선 기대
 - * 일본은 RCEP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RCEP에 대한 최근 현 정권 주요인사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음
- (TPP) TPP 발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중의원 선거('17.10.22)에서 TPP 대책위원장을 맡은 자민당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중의원이 낙선하면서 추진력 상실
 - * '17.11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TPP 협정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일본 중의원 선거, 뉴질랜드의 신내각 출범 등 각국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TPP 조기 발효 불확실성 가중
- (미일 양자무역협정) 미국은 농업 분야에서 TPP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 일본은 미일 양자 FTA에는 신중한 입장
 - * '17.10월 개최된 제2차 미일 경제대화에서 미국은 일본에 양자간 FTA 체결, 일본은 미국의 TPP 복귀를 요구하였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

일본의 협상전략

- ▶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해 ASEAN과 협력 강화하고 중국을 압박하여 ASEAN을 자국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전략
 - *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TPP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국가인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은 '17.6월 1,003억엔(1조 270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합의
- ▶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 지원 강화를 통해 협상 시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들이어 협상 조기 타결을 유도한다는 입장
 - * '17.2월 세코우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성 장관은 자유화 대가로 인프라 정비, 인재파견 등 경제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신흥국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 제공 계획을 밝힘

- (호주) RCEP 및 TPP 동시 참여를 통해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 영역 확장 기대
 - (RCEP) 참여국과 동반자 관계 강화로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추구, 호주 기업의 무역·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 * (농수산물) 규제 완화를 통해 호주산 육류·유제품·가공식품 등 수출, (서비스) 금융 서비스 규제 완화, 통신서비스 자유화를 통한 호주 기업 시장 진출 기회 확대, (투자) 포괄적인 협정을 통해 호주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기대
 - (TPP) 미국의 TPP 탈퇴에 대해 아쉬워하는 입장이나, 자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TPP 이행을 위해 노력 중
 - *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소고기·유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호주는 미국 제외 TPP-11 선호 속내도 존재
- (뉴질랜드)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수준 높은 협정 체결 희망
 - (RCEP)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강화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목적으로 조기 타결보다는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 희망
 - * 유제품을 비롯한 식품, 영어교육서비스, 관광서비스, 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관심
 - (TPP) 총선('17.9.23)에서 보수 집권당이 과반 획득 실패에 따라 노동당이 연립 정부 구성에 성공, TPP 재협상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조기 발효는 불투명
 - *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제한을 통한 자국 부동산 가격 안정 목적으로 재협상 추진⁷⁾
 - ** TPP 창립멤버이자 TPP를 통해 일본 농수산물 시장접근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뉴질랜드가 TPP를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뉴질랜드-일본 간 FTA 미체결)⁸⁾

7) Nikkei, *TPP to Rise From the Ashes*, (2017.10.13)

8) Nikkei Asian Review, *Tough Road Ahead for TPP 11 even with New Zealand on Board*, (2017.10.31)

- (싱가포르) RCEP 및 TPP에 지속 참여하며 기체결 FTA 개선 및 보완 입장
 - (RCEP) 통관절차, 인증 등 국별 상이한 절차의 간소화, 원산지 규정 조화 등 싱가포르가 구축해 놓은 무역협정 네트워크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
 - * 싱가포르는 ASEAN을 제외한 6개국과 모두 양자 FTA 체결
 - ** '15.12월 출범한 ASEAN 내 상품·서비스·투자·노동·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칙으로 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가속화도 기대
 - (TPP) TPP 혜택을 위한 집단절차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미국 제외 발효 방안인 TPP-11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 표명
 - * '17.10월 워싱턴 경제클럽(Economic Club of Washington D.C.)에서 싱가포르 리셴룽(李顯龍) 총리는 미국의 TPP 탈퇴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며 TPP-11 지속 진행 입장 표명

3 경제 발전 지렛대로 활용 - 미얀마, 캄보디아 등 신흥국

- (미얀마) 미국 TPP 탈퇴 이후 RCEP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보호 무역주의 확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RCEP을 통한 ASEAN 시장개방 수준 제고와 경제 통합을 강화하여 회원국 간 격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
 -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미얀마는 RCEP을 계기로 교역환경 개선 및 신정부의 대외개방정책과 시너지 효과 기대
 - * '16년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는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투자법, 회사법 개정 추진 중
- (캄보디아) RCEP을 통해 미국과 EU에 의존해 온 무역 구조 다변화, 의류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 증가, 무역장벽 완화 기대⁹⁾

9) The Phnom Pehn Post, *Alternative to TPP Shows No Sign of Activity: Analysts*, (2017.3.22)

[RCEP 참여국의 FTA 추진 현황(발효연도 기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2015	-	2010	2014	2015	2007G 2009s	-	-	-	-	-	-	-	2006	-	2015
중국	2015		-	-	2015	2008	2005G 2007s 2009	-	-	-	-	-	-	-	2009	-	-2
일본	-	-		2011	2015	- (TPP)	2008G	2008	-	2008	-	2006	-	2008	2002	2007	2009
인도	2010	-	2011		협상 중	협상 중	2010G	-	-	-	-	2011	-	-	2005	협상 중	-
호주	2014	2015	2015	협상 중		1983	2010 (호뉴A)	- (TPP)	-	-	-	2013	-	-	2003	2005	- (TPP)
뉴질랜드	2015	2008	- (TPP)	협상 중	1983		2010 (호뉴A)	- (TPP)	-	-	-	2010	-	-	2001	2005	- (TPP)
ASEAN	2007G 2009s	2005G 2007s 2009	2008G	2010G	2010 (호뉴A)	2010 (호뉴A)		-	-	-	-	-	-	-	-	-	-
브루나이	-	-	2008	-	- (TPP)	- (TPP)	-		-	-	-	- (TPP)	-	-	- (TPP)	-	- (TPP)
캄보디아	-	-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	-	-	2008	-	협상 중	-	-	-	-		-	-	-	-	-	-	-
라오스	-	-	-	-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2006	2011	2013	2010	-	- (TPP)	-	-	-		-	-	- (TPP)	-	- (TPP)
미얀마	-	-	-	-	-	-	-	-	-	-	-	-		-	-	-	-
필리핀	-	-	2008	-	-	-	-	-	-	-	-	-	-		-	-	-
싱가포르	2006	2009	2002	2005	2003	2001	-	- (TPP)	-	-	-	- (TPP)	-	-	-	-	- (TPP)
태국	-	-	2007	협상 중	2005	2005	-	-	-	-	-	-	-	-	-	-	-
베트남	2015	-	2009	-	- (TPP)	- (TPP)	-	- (TPP)	-	-	-	- (TPP)	-	-	- (TPP)	-	-

* 주 : - 미체결, G 상품협정, S 서비스협정, I 투자협정을 의미

* 자료원 : 각국의 통상 관련 부처 웹사이트

3 | 향후 전망

□ 아태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메가 FTA로서의 중요성 재 주목

- 미국의 TPP 탈퇴('17.1월), 뉴질랜드 총선('17.9월) 이후 동력을 잃은 TPP-11 발효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아태지역의 메가 FTA인 RCEP에 대한 중요성 점증
 - * 뚜렷한 주도국가가 없고 RCEP 참여국의 상이한 참여 목적이 타결에 걸림돌로 작용 (ASEAN·인도) 한국·일본·호주 등 높은 자유화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 (일본) RCEP 보다 개방 수준이 높은 TPP에 관심 다대 (중국) RCEP 보다 자국 주도 일대일로에 관심을 두고 있는 형국

□ ASEAN 창설 50주년 모멘텀 발휘 가능 존재

- '17.11월 ASEAN, APEC 정상회담 등 RCEP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수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ASEAN 창설 50주년을 맞아 연내 의미 있는 성과 도출될 가능성 여전히 존재

□ 기체결 FTA 자유화 수준 제고 및 GVC 활성화 기대

- RCEP을 활용하여 양허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FTA 추가 자유화, 원산지 규정 단일화, 원산지 증명 양식 간소화에 따른 스파게티볼 효과 완화 예상
 - * 한-ASEAN FTA 자유화 수준, 한-인도 CEPA FTA 활용률 제고 예상
- RCEP 국가간 원재료나 중간재 등의 역내 인정을 통해 중간재 교역 및 역내국 GVC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 한국은 이러한 GVC 변화 속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및 활용전략 마련 필요

□ 다자협상 장점을 활용한 협상전략 마련

- 다자협상의 장점인 집단압박(peer pressure)을 활용하여 공통의 목표 추구
 - * 자유화 역행을 주장하는 국가에 대해 여타국과 합의를 이뤄 압력 수단으로 활용, 다자협상은 양자협상에 비해 집단압박에 따른 반영여지가 크므로 포괄적 자유화를 위해 활용
- 참여 각국의 첨예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각국은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진전된 합의 도출 노력도 병행
 - * 중국-필리핀-베트남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 등 사안이 여전히 존재하나 국별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 타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 협상은 장기화 될 전망 [끝]

작 성 자

- 뉴델리무역관 한정하 대리
- 도쿄무역관 이세경 과장
-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차장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대리
- 싱가포르무역관 임정연 과장
- 양곤무역관 류태현 과장
- 하노이무역관 임현진 과장
- FTA지원팀 이주미 전문위원

Global Issue Paper 17-006

RCEP 제20차 공식협상 이후 주요 참여국 동향 및 향후 전망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7년 11월 9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FTA지원팀
(TEL 02-3460-7513)
(FAX 02-3460-7924)

I S B N | 979-11-6097-404-1(95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